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비승비속(非僧非俗)’. 포교의 최일선에서 전법사명의 원력을 불태우면서도 종단 내에서 중범이 규정하는 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위치의 포교사들이 스스로 지원하며 하는 말이다. 조계종의 경우 ‘포교법’을 통해 포교사들의 종단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종단 행정과 예산 편성 등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개방성과 다양성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원력 불자들이야말로 포교 인프라의 중심이다. 그들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한 포교의 미래도 밝아지기 어렵다.

포교사 지위 보장 · 지원 시스템 구축 시급

- 글 쓰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민 그리고 의망
 3. 일터 중심, 신학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제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 연 25억 준비되어 고교분투

포교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조계종 포교사단. 1982년 포교사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7천여명의 포교사가 배출됐다. 매년 포교사 고시를 통해 새롭게 뽑히는 포교사는 300여명에 이른다. 포교사들은 현재 17개본과 90여개 팀으로 나누어 전문성에 바탕을 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 이의 종단의 경우 자체적으로 포교인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포교사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조계종 포교사단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매년 300여명의 포교사가 포교사 고시를 통해 배출된다. 그러나 포교사 자격증을 딴 뒤 활동하는 현직 포교사는 전체의 30%에 이를 뿐이다. 포교사 배출 및 관리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사단이 조사한 <포교사단 팀활동 포교사 현황 보고서(2003)>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활동 중인 포교사들은 2천여 명으로 전체 포교사의 30%이다. 70%에 이르는 5천여명의 포교사는 자격만 부여받았을 뿐 활동을 아예 하지 않거나 도중에 포기했다.

왜 그들은 포교 일선에 나서지 않는 것일까. 포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승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자격만 부여할 뿐 포교사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거의 없고 재정적인 지원, 물적인 후원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벽에 막혀 포교 활동을 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한다.

현재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2천여명의 포교사들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상당부분 회생을 감수하고 있다. 가정의 생활비를 나누어 포교비로 사용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주말시간을 포교활동에 투자하고 있다.

■ 교육 부재...전문가 양성 역부족

포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포교사 배출과 관리 체계에 관계된 교육의 부실이다. 예비포교사들의 현장학습

강화, 포교방법 연구기관 및 포교사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전문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 포교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는 곧 포교사 고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조계종 포교원은 매년 불교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포교사 고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자들 사이에는 사찰불교대학 수료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 줌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때문에 포교사 자격증이 ‘장동자격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교대학 졸업자만을 포교사 고시 응시 자격자로 제한하는 지금의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사 고시의 시점을 졸업 전에서 졸업 후로 바꿀 예정이다.

그러나 포교사들은 “포교사 시험의 시행 시기와는 별개로, 자체 교육과정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불교대학은 포교사 활동을 위한 전문양성기관이 아니므로, 포교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키워내기에는 부족하다.

때문에 포교사 전문 교육과정을 불교대학 내에 개설하거나, 포교전문 아카데미를 설립하지 않으면 현장의 애로사항을 풀 길이 없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을 제도권 내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포교사 고시는 불교대학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불교대학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소속 사찰이나 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전체 응시자의 10% 내외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선웅 스님은 “추천자 제한 규정을 없애 좀 더 등용과정을 넓히고 다양한 현장전문가가 적재적소에 기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법문 ‘보장’ 현실에선 ‘외면’

어떻게 포교사 고시에 합격해 일선에 투입된 포교사들은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어려가지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토로한다. 현장 포교사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가운데는 ‘지원이 미비하다’거나 ‘일거리를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다.

서울·경기포교사단 지역봉사팀에 소속되어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 포교사는 “합장주나 불경을 선포하는 일, 호스피스 재교육을 받는 일 모두 자격으로 해결하다보니 생활비가 많이 모자란다”며 “적어도 종단 내에서 기본적인 포교도구는 지원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교원에서는 포교사 위탁교육에 대한 연수교육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포교사단 자체 집계결과, 한해 포교사단의 활동비용은 약 25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환산됐다. 모두 포교사들이 일선에서 뛰며 직접 자비(自費)로 부담한 돈이다.

양성홍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포교에 큰 뜻을 품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은 신심과 원력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낸다”며 “포교와 관련된 당면과제들을 포교사들만으로 풀 수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미 법적 장치는 있다. 조계종 포교법 제33조 1항에 ‘교구본사 및 사찰, 포교당은 포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포교사가 상근하는 사찰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 같은 법에서는 사찰이 포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상당히 많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최근 수원 용주사가 본사와 50여명에 이르는 말사 사찰마다 각각 1명의 상임포교사를 기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교사단 측은 이 같은 방침을 전해들은 뒤 “크게 고

무되었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법대로 사찰 포교사 제도를 실시한다면 현재와 같은 열악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포교사와 사찰이 밀착되어 포교를 펼치는 방안 외에도, 사찰의 눈이 미치지 않는 포교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에 대한 지원 대책 역시 마땅히 강구되어야 한다. 종단과 교구본·말사, 각종 포교단체와 포교사단 내 팀을 잇는 포교행정망을 구축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사찰-포교사 협력관계로

현 포교사들은 재가신도와 뚜렷이 구분되는 여법한 위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포교사에 대한 예우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종종 원대한 포교 원력을 세운 포교사의 활동을 가로 막거나 사기를 꺾는 원인이 되어왔다.

장원의 D사찰 포교사인 이모씨는 거사법회를 이끌려다 “재가자가 법상에 앉으려 한다”는 스님들의 비난에 부딪쳐야 했다. 이씨는 “사찰에서 활동하고 싶어도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며 “포교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포교사라는 직위가 우바이·우바새와 승가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위상제고 문제와 함께 각 사찰은 사찰불교대학 강사, 사찰 평신도 교육, 자원봉사 등의 사찰 제반활동에 포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찰은 포교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포교 사각지대에 주력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포교사단 사찰 문화해설1팀장 권중서 포교사는 “포교사를, 스님의 영역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스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포교사들에 대한 종단적 지원 확보, 종법에 따른 활용, 재교육 시스템 등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포교 인프라’의 핵심도 구축될 수 없다. 포교사는 맞춤포교 시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전문 인력이고 이들의 참여에 따라 맞춤포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모범사례 ●

문화해설·어린이회 지도 포교 시너지 효과 높인다

동해 삼화사(주지 원명)는 사찰내에서 포교사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서울·경기포교사단 지역봉사7팀(팀장 김명남) 소속 30여 포교사들은 사찰내 포교와 수행업무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화사 부설 동해불교대학 교무처에서 7명의 포교사가 활동하는 것을 비롯해 사찰 안내, 수련회·템플스테이 진행, 프로그램 구성 등을 주관하고 있는 것.

이는 포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와 여건을 만들어 준 삼화사측의 역할 제공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삼화사 주지 원명 스님은 지난 해 포교사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1백만 원을 선뜻 내어주기까지 했다.

희생 용주사(주지 정락)의 사례는 사찰에 연고를 두지 않은 포교사들이 노력봉사로 자리를 잡은 경우다. 서울·경기포교사단 사찰문화해설1팀(팀장 권중서)은 성보박물관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다. 성보박물관 관광객을 위한 문화해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교육, 현장학습 지도, 교도소 위문법회 등을 담당하고 있다.

스님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이들이 대신하게 되자,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은 교구 50여 말사에 상임포교사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지역포교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회계사(주지 성광)와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도 사찰내 포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찰로 꼽힌다.

동해불교대학에서 봉사하고 있는 최중욱 포교사는 “사찰은 포교활동을 원하는 초년포교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포교사들은 포교원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을 제공받으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자연 속에 천동,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 냉장권** 천동 번개와 유사한 전기 정화 방식은 원리를 도입하여 살균력 100% 살균 능력으로 살균 공기 생성.
- 필터** 산소와 리튬이온을 결합하여 공기 중의 먼지, 냄새, 악취를 흡착하여 제거해 줍니다.
- 해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저음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 인양구** 후면 산소와 리튬이온을 결합하여 제작된 인양구로 인양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성기능: 높이 30cm, 폭 20cm, 무게 8kg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카페, 호텔,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합니다.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 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안전연구소의 시험 환경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미국과 캐나다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선한 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동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동번개는 오존을 생산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 표면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시킨다. 리빙에어는 야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증체를 가리거나 흡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중성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써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우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생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완제품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피커만한 크기로 84평까지 청정 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인증서

- ▶ 산업공예시험성적서: 오존수치(세계안전 오존(O₃)) 안전수치 0.05ppm(이하)
- ▶ CSA: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성
- ▶ EPA: 미국 환경보호청(환경인양구) ▶ 미국방성으로부터 검사장을 받음

TELE: (02)2055-0202
FAX: (02)2055-0279
www.o2air.net

수신토종오가피 示曲 禮獻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종교(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로봉오가피 제재자 성광수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품질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에서는 연구논문용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 산내생양이 함유되어 있다. 오가피의 오가피 제재는 생약수수 수신토종오가피와 관련된 권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어가 사명호 교수 직접 제작한 분청사원을 드립니다.

오직 900분배만 매일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오가피 제재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수신토종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목재를 방지하는 훈포그램에 매달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